

李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

구례서 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국가차원 공식 추모·화해 의지 재확인

金총리 “피해자·유가족 치유 동행” 약속

金지사 “진상보고서 작성·위령사업 총력”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됐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환엽·김영환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조상재 곡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사연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을 전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 했다”는 유족의 말처럼

유족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기도 했다.

추모곡으로는 지리산에서 1천여명이 희생된 구례 산동면의 비극을 추모한 노래 ‘산동애가’를 창곡으로 구현해 지역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어진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

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 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고 울림 있는 말을 전했다.

이번 추념식은 2021년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

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대표 추념사에서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알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 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위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의대 지역인재전형 줄인 ‘글로벌 대학’

권고 미만 10개교...비율 축소도 12개교

김문수 “지방대 혁신모델이 이러면 곤란”

지방대 혁신모델이라는 ‘글로벌 대학’의 의대 지역인재전형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를 보였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조치에 맞춰 상승하던 의대 모집인원 조정 과정에서 하락한 것이다.

2026학년도 전형 결과,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78.57%, 가장 낮은 곳은 2.78%였다. 2곳 모두 ‘글로벌 대학’이다.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곳은 10개 대학이다. 이 가운데 2개교는 ‘글로벌 대학’이고 3개교는 최근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된 곳이다.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정 의무 선발 비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정부 권고는 60%다. 지방대육성법과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선발비율은 40% 강원·제주 20%다.

올해 지역인재전형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A대로 123.5%p 늘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B대로 감소 폭 18.01%p다. 모두 글로벌대학이다.

지난해보다 지역인재전형이 감소한 곳은 12개교이고 이 가운데 글로벌대학은 7개교다. 재작년보다 줄어든 곳은 2개교다. 대부분 재작년보다 늘리거나 비슷했는데 2개 글로벌대학은 그러지 않았다.

김문수 의원은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정부 권고보다 낮은 대학, 작년이나 재작년 보다 줄인 대학에 글로벌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며 “지방대 살리기와 국가균형성장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시대다. 글로벌대학부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선순환에 모범을 보이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시설 50기 확충

광주시는 19일 “올해 말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

환형 충전시설’을 공모해 LG에너지솔루션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충전시설 17기를 우선 설치하고 지난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환경부 공모사업

에도 참여해 충전시설 20기를 추가로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13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로써 광주 지역에 총 50기의 충전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이번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적용한 표준형 충전시설로 향후 출시되는 전기이륜차와 호환이 가능하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車 부품업체 맞춤 성장 지원

35곳 대상 미래차 재편·공정혁신

광주시는 19일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2025년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 강화 사업’ 대상 자동차부품기업 3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6·9월 3차례에 걸쳐 수혜 기업을 모집한 결과, 9개 지원 분야에 총 4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5개 업체를 확정했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다양한 세부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오는 12월까지 산업 변화에 따른 사업 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 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지원 사업은 ▲미래차 사업 재편 ▲공급망 ESG 대응 ▲연구개발(R&D) 기획 ▲품질 인증 확보 ▲공정 혁신 ▲공정기술 확보 ▲시제품 제작 ▲국내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 9개 분야로 맞춤 설계됐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부품업체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2년 간 32건(2023년

2건, 2024년 11건)을 지원했다.

참여 기업들은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한 사업 재편, 해외 수요처 맞춤형 사업화 모델 개발, 공정구조 혁신 등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립을 뒷받침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새로운 기회”라며 “지역 부품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모바일로 보고
AI가 읽어줍니다.
m.kjdaily.com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72호

북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이사장, 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임원후보를 다듬어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이사장 1명, 상임이사(문화체육본부장) 1명

2.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보수 : 공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응모자격 :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다음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분	자격요건
이사장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 3.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수석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상임이사 (문화체육본부장)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공사·공단 포함)의 상임임원 또는 부사장 상당(공무원 5급 상당)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 또는 부사장 상당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 3.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부교수 또는 수석 연구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해당 직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5.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0. 20.(월) ~ 11. 5.(수) 18: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yc2@bukgusil.or.kr

- (방문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68, 3층 경영지원팀

6.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서식 공단 홈페이지 참조)

7.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https://gbfmc.or.kr/)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광주 북구 주거지역 땅 평당330만원 급처분

-10미터 포장도로접 1,110평 / 전남대2,300미터거리-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